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 취임 축하난, 지역 어르신 정서안정을 위한 반려식물 공예품으로 재탄생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플랫폼을 빛고을공예협동조합과 지역상생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어르신 대상 공예교실 운영 -
- 사내 반디봉사단 직접 배달 및 교육 보조로 현장 중심 ESG 경영 본격화 -

전력거래소(이사장 김성진)가 신임 이사장 취임 축하난을 활용해 지역사회 기부와 취약계층 교육,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상생 행보에 나섰다.

전력거래소는 5월 27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가치매칭데이’ 플랫폼을 통해 빛고을공예협동조합(마을기업 손 빛)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임 축하난을 활용한 지역 어르신 대상 공예 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2일 취임한 김성진 이사장이 “취임의 기쁨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 며 자신에게 전달된 100여개의 축하난을 지역사회에 전량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공공기관의 자원이 사회적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예술기업 및 취약계층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가치 선순환 모델로 기획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광주지역 경로당 및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친 화분난 공예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인 빛고을공예협동조합이 전문 강사로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행사의 실질적인 나눔을 위해 전력거래소 임직원 봉사단인 ‘반디봉사단’도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첫 번째 힐링 공예 교실에 직접 참여해 축하난 배달과 교육 보조를 맡으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력거래소 김성진 이사장은 “취임 축하의 마음이 담긴 난초가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손길을 거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재탄생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 며, “오늘 협약이 작은 씨앗이 되어 지역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붙임 이사장님 취임 축하난 활용 어르신 힐링 공예반 운영사진 3부. 끝.

총괄 부서	기획처 ESG홍보협력팀	책임자	팀장	서민석 (061-330-8200)
		담당자	차장	박상혁 (061-330-8201)

담당 부서	기획처 ESG홍보협력팀	책임자	팀장	서민석 (061-330-8200)
		담당자	차장	김혜진 (061-330-8203)

[붙임 : 이사장님 취임 축하난 활용 어르신 힐링 공예반 운영 사진]

[사진1 : 반디봉사단 취임난 배달 사진]



[사진2 : 반디봉사단 참여 「제1차 어르신 힐링 공예반」 운영 사진(5.22)]



[사진3 : 「이사장님 취임 축하난 활용 어르신 힐링 공예반」 협약식 개최(5.27)]

